궁극적 깨달음 경지, 無位眞人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⑤ 참사람(無位眞人)

임제가 법당에 올라가 말했다.

"벌거벗은 몸뚱어리 위에 틀이 없는 참사람이 있다. 항상 여러분들의 얼굴로 출입하고 있다. 보지 못한 사람은 똑똑히 보아라."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틀 없는 참사람이오?"

임제가 선상에서 내려와 물은 사람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말해봐. 말해봐."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제가 멱살을 놓고 밀치며 말했다.

"틀 없는 참사람이 무슨 똥막대기인가?"

그러고는 바로 방장으로 돌아갔다.

틀 없는 사람(無位眞人)은 〈임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다. 무위(無位)란 지위, 혹은 차별이 없다는 말인데 무어라 규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남녀노소, 상하귀천, 범성미오 등 사람의 신분을 무엇이다, 어떻다 말할 수 없다는 말로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를 의인화 한 말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차별 없는 사람, 지위 없는 사람이라 번역하기도 했으나 '틀 없는 사람'이라 번역해 보았다. 폼(form)이 없다는 뜻이다.

신체적인 모양이나 정신적인 어떤 상태를 틀이라 표현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를 꼭 집어 말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진짜 사람이라 하여 진인(眞人)이라 하였다. 곧 '참사람'이란 말이다. 원래 진인(眞人)이란 말은 장자(莊子)가 쓴 말로 장자의 '대종사(大宗師)' 편에 나온다. 불교에서는 부처나 아라한을 의역할 때 써 오기도 했다.

설법을 하러 법좌에 올라가자 어떤 스님이 나와 절을 했다.

임제가 할(喝)을 했다.

스님이 말했다.

"노스님은 탐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제가 말했다.

"자네가 말해봐라.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

스님도 바로 할을 했다.

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임제가 바로 할을 했더니 스님이 절을 했다.

임제가 말했다.

"자네가 말해봐라. 이 할이 좋은 할인가 좋지 않은 할인가?"

스님이 말했다.

"초적(草賊)이 크게 패했습니다."

임제가 말했다.

"허물이 어디에 있었는가?"

스님이 말했다

"다시 범하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임제가 할을 했다.

임제의 법문은 주로 할(喝)이다. 질문을 받으면 곧잘 할을 한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고 묻자 할로써 응수한다. 그랬더니 물은 스님이 절을 한다. 버럭 고함을 한 번 질렀더니 절을 한 것이다. 그러자 또 임제가 마치 네가 내 할의 뜻을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묻듯이 이 할이 좋은 할인가 좋지 않은 할인가 하고 묻는다. 물은 스님도 만만찮다. 초적(草賊)이 대패를 했다 한다. 초적이란 좀도둑이다. 법을 훔치려던 도둑이란 말인가? 그런데 임제를 도둑이라 한 건지 물은 자신을 도둑이라 한 건지 알 수가 없다. 뭣 때문에 도둑이라 하는가? 누가 도둑인가? 허물이 어디 있냐고 하니 다시 허물을 찾는다면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일종의 협박성 발언이다. 그 협박성 발언에도 또 할을 한다.

어느 날 양당의 수좌들이 서로 만나 한꺼번에 할을 했다.

어느 스님이 임제에게 물었다.

"주인과 손님이 있습니까?"

임제가 말했다.

"주인과 손님이 분명히 있지."

임제가 말했다.

"대중들, 임제의 '주인과 손님'을 알고 싶은가? 양당에 있는 두 수좌에게 물어들 보게."

그리고는 법좌에서 내려왔다.

두 채의 건물로 나눠진 선방에서 정진하던 수좌들이 만나 동시에 할을 하였다. 이 할을 두고 어느 스님이 주인과 손님이 있느냐고 임제에게 묻는다. 빈주(賓主)란 임제선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사빈주(四賓主)가 있다. 종지를 드러내는 방편적인 수단이 네 가지가 있다는 말이다.

원래 학인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종사를 주인이라 하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를 손님이라 하였는데 나중에 선기(禪機)가 익어지면 빈주교참(賓主交參) 혹은 빈주호환(賓主互換)이라 하여 서로의 자리를 자유롭게 바꾼다.

〈조계종 고시원장〉

중생, 보살이 있어야 하는 이유



세상 속 경전읽기

⑤ 바라밀(波羅蜜)과 나룻배

먼지 탄 책꽂이를 눈으로 더듬다가, 책등의 위쪽이 일부 떨어져 나간, 청색조의 양장본 책에 눈이 멈추었다. '~의 沈默'이 눈에 들어온다. '님의 沈默'에서 '님' 글자 부분의 책등 껍질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책을 뽑아들고 끝 쪽의 판권장(版權張)을 살피니 '정가 330원'이고, 1950년 초판을 찍어, 1970년에 10판째인 발행본이었다.

대학생 때 자주 들고 다니며 읽은 탓에 모서리들이 많이 헤졌다. '타고르 시선'과 함께 애송하였던 오랜 기억을 떠올리며 책을 펼친다.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 갑니다. /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 갑니다."

한용운 선사의 '나룻배와 行人'이란 시의 전반부이다. '나룻배와 行人'은 바라밀(波羅蜜, Skt. pāramitā)을 시어로 표현한 것이다.

바라밀은 보살 대행(大行, 큰 덕행)을 지칭한 것으로, '모양에 집착한 착한 일(有住相의 善行)'보다는 '집착이 없는 큰 덕행(德行)(無住相의 大行)'을 뜻한다. 바라밀은 능히 자기 스스로 불도(佛道)를 닦고 그 얻은 바에 따라 다시 다른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궁극에 다다른 것이니 '사구경(事究竟)'이라 뜻번역한다.

또 이 덕행에 힘입어, 생사의 고통이 있는 차안(此岸)에서, 번뇌와 고통이 없는 열반의 피안(彼岸)에 도달하므로 '도피안(到彼岸)'이라 뜻번역한다. 이 덕행으로 인해 능히 한없이 넓고도 먼 온갖 세속사(世俗事)에서 중생을 제도하니 '도무극(度無極)' 또는 '도(度)'라 뜻번역하기도 한다.

바라밀은 산스크리트어 pāramitā를 음사(音寫)한 것으로, pāramitā의 어원을 'pāram(to cross over, to save)'으로 보면 '건넨다[도(度)]'가 되고, 어원을 'pārama(supreme, excellent)'로 보면, '무극(無極, 궁극, 최상)'이 되니, '도무극(度無極)'은 '건넨다'는 뜻과 '궁극'의 뜻을 합성한 뜻번역인 셈이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 /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위에 언급한 시 '나룻배와 行人'의 후반부이다. 중생은 보살을 있게 하는 원천이다. 피안으로 건네줄 중생이 없다면 어찌 보살 대행이 있을 수 있으랴.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에 바라밀다를 바라밀다라 부르나이까.' '선남자여, 다섯 가지 까닭이 있으니, 첫째, 물들고 집착함[染着]이 없는 까닭이요, 둘째, 돌아보고 생각함[顧戀]이 없는 까닭이요, 셋째, 죄와 허물이 없는 까닭이요, 넷째, 분별이 없는 까닭이요, 다섯째, 바르게 회향하는[正廻向] 까닭이니라.'"

[世尊何因緣故. 波羅蜜多說名波羅蜜多. 佛告觀自在菩薩曰. 善男子. 五因緣故. 一者無染著故. 二者無顧戀故. 三者無罪過故. 四者無分別故. 五者正迴向故.]

〈解深密經 T0676_.16.0705c25-8〉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㊶ 이해의 길 31

'언어 한계' 인식한 밀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불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번쯤 들어봤을 소리다. 이것은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이라 불리는데, 글자 그대로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다. 주로 경전을 독송할 때 이 주문을 읊조리면서 시작한다. 이런 진언이나 만다라(Mandala) 등을 통해 깨침의 세계를 드러내는 불교가 바로 밀교(密敎)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불교를 비밀스런(密) 가르침(敎)이라고 했을까?

밀교란 비밀불교의 준말인데, 언어나 문자와 같은 형태로 드러내는 현교(顯敎)와 대비되는 말이다. 붓다의 깨침은 언어의 길이 끊어진(言語道斷) 종교적 체험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는 것이 본래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언어를 통하지 않고 이를 전할 방법이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다. 붓다가 45년 동안 수많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깨친 진리를 드러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밀교에서는 이러한 언어적 설명 방식이 깨침의 세계를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보다는 만다라, 진언과 같은 상징이나 소리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밀교는 대승불교 후기에 해당되는 7세기 중반부터 13세기 사이에 유행한 사상이다. 주요 경전으로는 〈대일경(大日經)〉과 〈금강정경(金剛頂經)〉 등이 있다. 밀교의 수행 방식인 진언은 본래 불교가 태동하기 훨씬 이전부터 인도 사회에서 유행하던 종교 의식이었다. 그들은 병에 걸리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주문을 외우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다. 바라문교의 경전인 〈베다〉나 〈우파니샤드〉 등에는 수많은 주문들이 등장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주술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붓다는 바라문교의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주술적이고 은밀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세속적인 주술이나 비법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당시 정신문화는 바라문들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붓다는 자신이 깨친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개방을 하였다. 이러한 불교의 개방성은 당시에는 혁명적이었다. 불교는 눈뜬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직접 볼 수 있는 열린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승불교 후기에 이르러 주술적인 방식이 불교계에도 수용된다. 당시 바라문교는 인도의 토착신앙을 포용하여 힌두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그리고 기존의 주술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는 그들의 요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대승에서는 교화의 방편으로 진언을 수용하여 불교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당시 주류였던 중관이나 유식이 너무 어려워서 대중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요인도 작용하였다. 그만큼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앙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밀교의 진언에는 산속에서 뱀을 만날 때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주술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본래 진언(眞言, Mantra)은 '심성'이란 의미의 '만(man)'과 '파내는 연장'을 뜻하는 '트라(tra)'가 합성된 말이다. 두 단어를 연결하면 진언은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래의 성품을 파내는 도구, 즉 참(眞) 소리(言)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의미를 새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언을 외우면 깨침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밀교에서 주목한 것은 경전에 설해진 가르침이 아니라 붓다의 깨침 그 자체였다. 깨친 눈으로 보면 한 송이 장미와 그 위에 날아든 벌과 나비 등 모든 존재가 법신(法身), 즉 진리 자체라고 한다. 밀교의 주불(主佛)인 대일여래(大日如來)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처다. 우리가 사는 곳은 큰 태양(大日)과 같은 광명이 빛나는 부처들의 공간이자 진리가 현현(顯現)된 세계인 것이다. 그러니까 밀교에서는 진언이라는 붓으로 한 폭의 아름다운 만다라를 그리고 있는 셈이다. 비밀스럽게 말이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밀교에서 말하는 진짜 비밀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부처라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법당에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옴 마니 반메 훔' 등의 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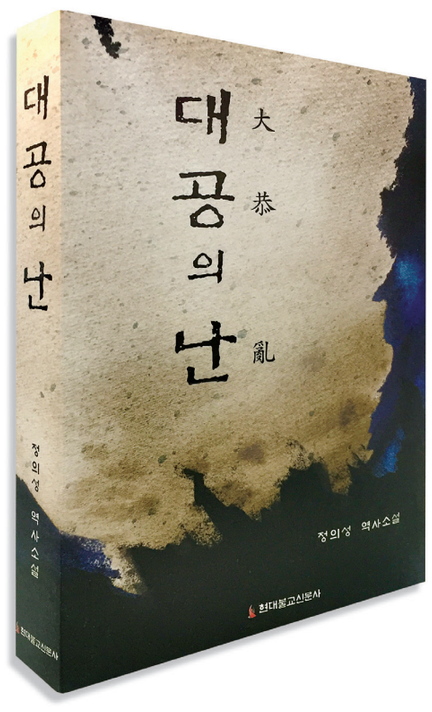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